

조선후기 실학파의 복식제도에론

정 혜 경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Practical Science Scholar's Discussion about a System of Costume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Hye Gyung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1997. 5. 15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consider about the research of a costume and a discussion about a system of costume by practical science scholar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The result are described as follows:

1. The purpose that practical science scholars researched a costume was not only the intellectual research but also to make a basis in order to reform a uncorrected costume's system. Their study had two point. The one was the investigating research about the origin and change of the costume. The other was the study about a formation of costume.
2. The practical science scholars determined the directions to reform a wrong costumes' system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about a costume. They had three directions. Those were a conservatism, a rationalism to think the realities of life and a reformation.
3. The practical science scholars' thinking was to pursue the origin form and the practical use. This two axis show the direction to improve our costume's culture now a day.

I. 서 론

조선시대에 있어서 유교는 문화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복식문화 역시 유교적 체계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있어서 복식제도란 유교사회의 문화적

바탕이 되는 禮를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이 되는 것이었다. 理學, 禮學, 實學시대로 3분되는¹⁾ 조선의 유학에 있어서 실학은 입란과 호란을 겪은 후 현실을 직시하고 비판적인 의식을 지닌 지식인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학풍으로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실학자들은 먼저 당시까지의 형이상학적인 성리학에 대해 비판하며 역사와 현실에 관심을 가졌고, 나아가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같은 학풍은 그들로 하여금 보다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다양한 분야

*이 논문은 1996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에 대해 연구하게 하였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식 분야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연구 업적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전의 유학자들이 복식에 대해 연구하지 않은 바는 아니다. 禮學이 발달하는 16세기 이후 禮書가 편찬되면서 喪禮와 祭禮 복식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그후 17세기에 이르러 예학이 본격적으로 발전되면서 四禮 복식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朱子「家禮」를 근거로 한 禮服 중심적인 것이지 현실의 생활복식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실학자들의 복식에 대한 연구는 옛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복식제도를 바르게 하는데 있었으며, 이는 곧 본질적인 것을 찾아 올바른 禮를 행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내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四禮 복식을 중심으로 한 고찰에서 벗어나 현실생활과 접한 일상적인 복식에 이르기까지 다루었으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복식에 대한 연구 방법 역시 옛 문헌과 그에 대한 諸儒의 해석에서 벗어나 先儒와 朱子の 견해라도 의문이 있으면 비판하는 자세를 가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고증에 입각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학문방법을 택하였다.

본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실학자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복식문화를 연구한 바를 고찰하는데 있다. 실학자들은 이같은 연구 작업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 이를 개혁하여 민족문화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복식에 대한 연구작업을 기초로 하여 제시한 복식제도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같은 작업은 실학적 사고가 반영된 복식제도의 여러 측면에 대해 이해하며, 조선 후기 복식문화의 전개방향을 살펴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상황과 가치관에 적합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실학자들이 복식제도에 대해 연구한 바는 복식의 기원과 변화에 대한 고증학적 연구, 그리고 복식의 구성에 관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복식제도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한 작업이었으며, 후자는 그들의 학문이 실천적인데 관심을 둔 데 기인한 것이다.

둘째, 실학자들이 복식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제시한 제논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같은 논의는 복식의 기원과 변화 및 구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7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의 실학자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학기를 초기, 중기(북학파), 후기의 세시기로 구분했을 때, 柳馨遠(1622~1673)의 「磻溪隨錄」, 李翼(1681~1763)의 「星湖僿說」은 실학 초기에 해당되며, 洪大容(1731~1783)의 「湛軒書」, 李肯翊(1736~1806)의 「練藜室記述」, 朴趾源(1737~1805)의 「燕巖集」, 李德懋(1741~1793)의 「靑莊館全書」, 朴齊家(1750~1815)의 「北學議」는 중기인 북학파에 해당되고, 丁若鏞(1762~1836)의 「輿猶堂全書」, 徐有榘(1764~1845)의 「林園十六志」, 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稿」는 실학 후기에 해당된다.

II. 복식제도에 대한 연구

실학자들은 복식제도에 대해 연구하면서 옛문헌을 인용하거나 참고하고 분석하는 實事求是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실학기의 각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초기 실학파는 주로 옛 제도를 연구하며 고증하여 복식의 본제도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후 북학파는 실용학문을 통하여 부국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고증을 위한 고증을 비판하였다²⁾.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후기 실학자들은 청의 고증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게 되었다³⁾. 청의 고증학은 宋代 性理學에서 탈피하여 경정의 뜻 자체를 재해석하여 원시유학의 실상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었으며, 이같은 연구는 經學 뿐 아니라 그외 여러분야의 연구에서도 적용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복식제도에 대해 연구한 내용은 주로 복식의 기원을 밝히고 변화과정을 살펴는 고증학적 연구와 형태적 구성적인 측면에 관한 실제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1〉 참조).

1. 복식의 기원 및 변화에 관한 고증학적 연구

실학자들이 복식제도의 본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식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

<표 1> 복식의 기원과 변화 및 구성에 관한 연구 내용

저자	내용	기원과 변화			구 성			비 고
		유 래	해석상의 오류	풍속상의 오류	형태 및 제도	제도상의 오류	기 타	
이익 (1681~1763)	竹笠, 方笠, 蔽陽笠, 笠子, 삼국시대 부녀머리 양식, 髮髷, 欄衫	珮袋, 白衣禁令, 木棉	髮髷, 欄衫, 부녀복, 언지	掩, 披肩, 耳掩, 揮項, 耳衣, 深衣, 綴翼, 玄端, 裘, 道袍, 鶴髦之類, 欄衫, 木屐	裘, 笏, 民字巾		「星湖僿說」	
홍대용 (1731~1783)	중국복식제도		髷髻, 부녀복	漢族복식(鳳冠, 冠服, 章服, 閣服)	深衣		「湛軒書」	
이금익 (1736~1806)	목화, 虎鬚, 羅濟笠, 冠服			龜甲裘, 笠, 冠, 紗帽, 紗帽耳掩, 遮額			「練葵室記述」	
박지원 (1737~1805)					深衣		「燕巖集」	
이덕무 (1741~1793)		綿, 棉	笠	油衣, 부녀복식	深衣		「靑莊館全書」	
박제가 (1750~1815)						길쌈·누에치기, 중국직조기술과제도	「北學議」	
서유구 (1764~1845)				笠, 蓑笠, 網巾, 幅巾, 縹冠, 卧龍冠, 東坡巾, 方冠, 毳帽, 揮項, 風遮, 毛氈, 簇頭伊, 釵, 道袍, 深衣, 鶴髦衣, 便服, 裘, 褙子, 藤褙子, 手套, 부녀衣裳, 唐衣, 圓衫, 鞋, 衾褥, 帶履, 雜飾	笠과 網巾의 오염 제거법, 取皮物不蛀法, 取襪物不蛀法, 毛氈衣 씻는 법, 마늘제조법 및 관리법, 옷보관법		「林園十六志」	
정약용 (1762~1836)						布帛尺개선, 직조기술, 직조기구제작법	「與猶堂全書」	
이규경 (1788~?)	網巾, 宕巾, 紗帽, 黑漆笠, 加髷, 辮髷, 辮髮, 蓋首, 쪽머리, 쪽두리, 너울, 巾帽, 暖耳, 袈裟, 道袍	木棉과 草綿, 즉 두리, 너울, 笠子, 道袍, 雙介	巾, 幘頭	冠, 冕, 幘, 帽, 幘頭, 紗帽, 冲正冠, 網巾, 暖帽, 深衣, 褰服, 裘, 經帶, 佩袋, 印章, 綉	의복소용량(大昌衣, 道袍, 冬衣, 男子赤古里, 袴, 赤衫, 汗衫, 女子赤古里, 單衫, 袴, 短袴, 廣短袴, 裘, 無足裘), 관리세탁법, 마늘제작법, 길쌈도구제작 및 명칭		「五洲衍文長箋散稿」	

으면 안되었다. 각 저술에 기록된 바를 살펴보면 복식의 유래에 대한 고증은 단순히 복식의 기원이나 변천 그 자체에 대한 탐구보다는 이를 통하여 선진들의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풍속을 바르게 하는 기초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복식의 기원 및 변화에 대한 연구는 유래에 관한 것과, 해석이나 풍속상의 오류

를 지적하여 이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복식의 유래에 대한 고증

이익은 복식의 기원을 연구하여 우리 예법이 대부분箕子때부터 비롯되었으며 기자는殷나라 사람이므로殷의 遺制가 많이 있다고 보았다. 그 예로 삼국시대에

부녀가 髮로서 머리를 두르는 것, 당시의 髻鬢과 竹笠이 은나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였다⁴⁾. 반면 상주가 출입시 쓰는 方笠은 고구려의 절풍림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그후 이 절풍림이 蔽陽笠으로 변하였고 또다시 笠子가 되었다⁵⁾ 하여 방림이 우리나라의 옛제도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홍대용은 특별히 중국 복식제도의 유래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중국복제가 곧 우리나라의 복제를 정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규경은 문익점이 목화를 전래한 공을 치하하면서 목화가 중국 및 우리나라에 전래된 유래와 방적기구가 元초기에 崖州로부터 중국에 전해진 것임을 고찰하였다⁶⁾. 또 虎鬚는 顯宗때 풍년을 기념하여 보리 이삭을 꽃은데서 유래된 것이며, 신라와 고려, 조선의 관복제도가 중국에서 유래된 이후 그 변천에 대하여 고증하였다⁷⁾. 그러나 羅濟笠의 경우는 그 시초를 잘 알지 못하지만 명칭상으로 보아 신라와 백제때 생긴 것이라고 추측하여, 문헌고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명칭만으로 막연한 유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⁸⁾.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叢稿」는 복식의 유래와 변천에 대한 변증으로 두드러진 작품으로서, 모든 만물은 발생 발전 소멸이라는 단계를 거친다고 보는 그의 변증법적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冠巾의 유래 및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網巾은 縹布巾에서, 紗帽는 幘頭에서, 宥巾은 幘巾에서, 黑漆笠은 折風笠에서 패랭이로 발전한 후 나왔고 그후 笠제도의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았다⁹⁾. 부녀의 首飾에서는 辮髮과 蓋首는 단군으로부터, 加髻는 宋 高太后때에 기원을 두었으며, 辮髮는 몽고 풍속이며, 당시의 쪽을 지어 비녀를 꽂은 머리는 加髻에서 北髮로 변한 후 발전한 것이라 하였다¹⁰⁾. 그외에도 巾帽 및 袈裟와 暖耳의 연혁, 의복을 만든자의 이름을 들어 그 기원을 고찰하였다¹¹⁾.

2) 해석상의 오류에 대한 고증

선진들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 옛 문헌을 인용하여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익은 瓊袋와 白衣禁令 및 木棉에 대해 고증하였다¹²⁾. 패대는 明 世宗代(1522~1567)에 생겼다고 하지만, 이미 옛 제도에 푸른색이나 검은색으로 물들

인 옥이 아니면 반드시 袋에 넣었다고 하는 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상고해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白衣禁令에 대한 고증에서는 白衣풍속이 箕子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금령이 내려진 주요인으로 제시된 '木이 金에 제어를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 예로 殷, 周, 箕子와 고려 및 조선이 흰색을 숭상하면서도 항구하였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들었다. 또 목면이 중국에 유입된 것에 대하여는 「續博物志」를 인용하여 番禺의 사신 黃始가 가져온 것임을 밝혀, 元나라때 비로소 중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丘濬의 설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특별히 실학자들은 목면이 국내에 전래됨으로 의생활에 기여한 사실에 관심을 보이고 이 목면이 전래된 유래에 대해 고증한 경우가 많다.

이덕무는 棉에 대해 고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草棉과 木棉을 분별하지 못하고 木綿이라고만 일컫고 있음을 지적하고, 綿과 棉을 구별하여 문익점이 가지고 온 것은 草棉의 종자이며 이로써 짠 베는 棉布임을 밝혔다¹³⁾. 또 笠의 기원에 대하여 이익이 弃의 遺制라 한 것을 비판하여, 笠은 농부의 雨具라 하였다¹⁴⁾.

이규경은 잘못된 해석을 지적하여 죽두리는 明 萬曆 말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倭冠이며 후 元의 古古里가 전해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 너울이 蓋頭에서 나왔다고 하나 실은 중국의 帷帽에 기원을 두었음을 고증하여 밝히고 있다¹⁵⁾. 특히 이익이 복식의 유래에 대해 잘못 고증한 경우를 밝혀내어, 목면과 초면을 같은 종자라고 한 것에 대해 그 차이를 고증하며, 조부 이덕무의 말을 인용하여 이익의 사실이 뛰어난지만 다만 笠子와 道袍 및 부녀자의 雙介가 箕子로 인하여 왔다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즉 笠子是 비웃의 시초이고 雙介는 몽고 풍습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¹⁶⁾, 道袍에 대하여는 道釋에서 나왔기에 道服이라 명한다는 조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道袍의 근원은 고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실사구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¹⁷⁾.

3) 풍속상의 오류에 대한 고증

사실상 실학자들에게 있어서 복식에 대한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잘못된 복식제도를 올바르게 수정하는데 있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이들의 학문적 관심은 올바른 제도로 회복하고자 하는 비판적

자세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천적인데 있었던 것이다.

이익은 髮髻, 欄衫, 부너복, 연지 등의 풍속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당시의 풍속을 비판하며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하였다¹⁸⁾. 먼저 부녀의 사치스러운 髮髻는 巾幘에서 유래된 것임을 「詩經」의 都人士를 탐구하여 밝혔다. 이에 근거하여 巾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 欄衫은 後魏시대에 衣에 치마(裾)를 이어 횡폭으로 만든데서 유래된 것으로 胡風임을 밝혔다. 당시에 欄衫은 「家禮」에 의거하여 冠禮에 사용하기 위해 연경시장에서 구입해 오는 상황이었으나 이익은 朱子가 난삼을 사용한 것은 풍속을 따르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그리고 부너복이 허리를 가리지 못하는 것은 元의 영향이며, 世祖가 부너복을 窄袖 短衣로 한 이후에 이것이 편리하므로 계속 사용되었다고 하여 胡風임을 지적하였다. 연지 등의 풍속도 부덕한데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밝혀 이같은 풍속을 비판하고 있다.

홍대용은 우리나라 부인의 鬢髻와 의복제도는 夷俗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같은 습속을 고치기 위하여 중화의 옛제도와 아울러 근래까지의 연혁에 관심을 보였다¹⁹⁾.

이덕무는 笠이 농부의 雨具이므로 이를 항상 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²⁰⁾.

이규경은 幅巾만 쓰기도 예를 갖추는 것은 잘못이며, 朝服에 幘頭를 쓰는 것은 後魏시대의 오랑캐 제도인데 지금도 사대부가 착용하는 것은 잘못된 풍속이라고 비판하였다²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복식의 유래를 고찰한 내용은 남자복식 중에서는 網巾, 宕巾, 方笠, 竹笠, 蔽陽笠, 笠子, 黑漆笠, 冠, 紗帽, 虎鬚 및 冠服, 欄衫, 道袍, 袈裟 등이 있으며, 여자복식 중에서는 巾幘, 髮髻, 鬢髻, 鬢髻, 加髻, 쪽머리, 죽두리, 너울, 暖耳 등이 있다. 즉 현실적인 복식제도에 관심을 두어, 당시 대표적인 복식의 의문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주로 고찰하여 笠제도와 道袍, 여자 首飾과 衣服 및 木綿에 대한 고증이 자주 거론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복식에 대하여 문헌자료를 근거로 고증하고 있는 목적은 단순히 복식의 기원과 변화해온 내력에 대한 지적 탐구일 뿐 아니라 복식제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풍속을 올바른 제도로 고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복식이 변화해온 내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규경의 복식변증본이 이에 해당된다. 이같은 복식의 유래에 대한 고증은 원시유학을 지향하는 실학자의 관심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가운데 특히 이익의 方笠, 이규경의 羅濟笠, 이규경의 辮髮과 盖首 등에 관한 고증, 특히 木棉의 전래에 대한 고찰은 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유래를 고찰한 경우로 돋보인다.

그리고 복식제도의 유래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을 고증한 것으로는 이익의 瓊袋와 白衣禁令, 木棉의 유래, 이덕무의 綿과 棉, 笠 및 이규경의 木棉과 草棉, 笠子, 道袍, 죽두리, 너울, 雙介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 잘못된 풍속을 바르게 하도록 지적하고 새로운 제도를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는 이익의 欄衫, 부너복, 연지, 髮髻, 홍대용의 鬢髻와 부너복, 이덕무의 笠, 이규경의 巾과 幘頭에 대한 내용이 있다.

2. 복식의 구성에 관한 실제적 연구

실학자들의 학문적 대상은 실천적 관심을 지니는 실재적인 것이었으며, 그들의 학문 태도는 과학적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복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실증적 과학적 태도로 복식제도를 고찰할 뿐 아니라 형태적 구성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식의 구성에 대한 연구는 형태나 제도에 대한 것,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경우, 그의 여러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내용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형태 및 제도에 대한 고증

이익은 먼저 여러 복식의 형태에 대해 문헌을 인용하여 고증하고 있는데 深衣와 襪翼 및 玄端의 형태를 비교하고, 裘, 道袍, 鶴髦之類, 欄衫, 掩, 披肩, 耳掩, 揮項, 부녀의 耳衣 및 木屨의 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시험적이고 실제적, 실증적인 자세로 복식의 형태에 대해 고증하여 白甲은 종이로 만들어졌으나 화살이 뚫지 못한다 하므로 이를 兵家에서 마땅히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²⁾. 深衣制度에 사용되는 指尺은 몸집과 손가락의 길이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周尺을 써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척도에 얽매 일 것이 아니라 몸집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하여 실제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 또 심의의 치수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심의의 너비는 7尺 2寸으로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둘레가 4尺 8寸이 되는데 이는 몸둘레 3尺 5寸에 비해 1尺 3寸이 더 크므로 몸집을 넉넉히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²³⁾.

홍대용은 중국 복식제도에 있어서 만주인과 중국인의 차이, 길흉간의 구분, 평상시와 가례 및 제례때의 차이, 미혼·기혼·과부·사역자에 이르기까지 머리로 부터 신까지 모든 복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에 대한 정확한 형태를 알고자 하였다. 그래서 글로써 표현되지 않는 것은 그림으로 밝히고 그래도 밝힐 수 없는 것은 증이로 모형을 만들어 주도록 부탁하여 분명하고도 실증적인 방법으로 탐구하였다²⁴⁾. 특히 禮를 좋아하는 가문에서 중국제도를 모방하기도 하나 문헌에 따를 고증이 정확하지 못하여 오히려 이상한 의복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漢族의 冠服 진본과 鳳冠을 연경시장에서 구하여 법식대로 만들 고자 하였으며, 章服의 제작 및 양식, 閨服의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²⁵⁾.

이공익은 龜甲裝의 형태와 笠, 冠, 紗帽, 紗帽耳掩, 遮額의 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덕무는 복식의 구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과학적, 시험적, 실사구시적인 자세와 기능성을 중히 여기는 실학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그 예로 「家禮」와 「常禮備要」에 수록된 周尺과 布帛尺 및 古尺을 비교 고찰하였으며, 부녀복식이 짧고 좁은 것을 시험삼아 입어보고 그 폐단을 지적하였으며, 深衣에 대한 설은 너무 오래되어 상고할 수 없다 하여 글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설을 수용하는 입장에 섰다²⁶⁾. 그의 비울 때 쓰는 油衣는 치마같은 형태로 머리에 써서 손으로 잡아야 하므로 비바람을 막는데 비효율인데 비해, 여진족의 油衣는 소매와 옷깃이 있어 기능적인 형태임을 비교하였다²⁷⁾.

서유구는 冠巾의 종류 가운데 笠, 蓑笠, 網巾, 幅巾, 緇冠, 卦龍冠, 東坡巾, 方冠, 毳帽에 대해서, 衣裳의 종류로는 道袍, 深衣, 鶴筆衣, 便服, 裘, 褙子, 藤褙子, 手套, 揮項, 風遮, 毛氈에 대해, 女服의 종류로는 簇頭伊, 釵, 衣裳, 唐衣, 圓衫, 鞋에 대해서 그외에 衾褥, 帶屨, 雜飾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형태 및 구

성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이규경은 冠, 冕, 幘, 帽, 幘頭, 紗帽 등의 형태를 고찰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제도를 구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冲正冠을 사가지고 와서 그대로 만들어 제도를 확립하기도 하였다. 또 清代의 「戴氏遺書」를 인용하여 喪禮時 冠과 裹服에 사용되는 布의 종류를 설명하고 裹服의 구성, 裘, 經帶, 網巾, 珮袋와 印章과 綉, 暖帽, 深衣의 제도를 고찰하였다. 經帶에 대해서는 중국 문헌을 인용하면서 이를 우리 예법과 맞추어 보도록 권하였으며, 深衣제도는 중국의 문헌과 이덕무의 청장 관전서에 수록된 심의제를 인용하면서 裳제도는 앞 좌우, 뒤가 각각 4폭인 심의제를 제안하였다²⁸⁾. 그리고 祖父 이덕무의 塗葉記를 인용하여 왕비의 冠服 입는 법을 고찰하였다.

2) 제도상의 오류에 대한 고증

이익은 문헌고증을 통하여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그 예로는 裘와 笏 및 民字巾을 들 수 있다²⁹⁾. 먼저 裘의 문양과 형태에 있어서 「禮記」玉藻篇의 注에 裘의 黼袂에 대해 이르기 를 검은 양피에 흰 여우털을 섞어 黼紋을 만든다고 하였으나 털옷에 수를 놓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文獻通考」를 인용하여 裘와 宋代의 道服, 長褙子와의 형태를 서로 비교 고찰하고 있다. 纁의 제도는 「禮記」玉藻篇에 의하면 大夫와 선비의 纁이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당시 朝官들의 纁은 아래쪽이 넓으므로 이는 예가 아니라고 하였다. 민자건은 형태가 民字처럼 되는 것이 본래 모습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뒷면이 벽처럼 곧고 뒷면이 앞으로 구부러져 앞뒷면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대용은 심의는 좌우 앞길이 각각 뒷길의 1/2에 해당되므로 옷깃을 여몄을 때 좌우의 길이 거드랑이 아래로 당겨지게 되므로 본래 지니고 있는 뜻인 平正도 이루지 못한다 하여, 時服에 비해 비합리적인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였다³⁰⁾.

박지원은 당대에 유학자들간에 深衣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실상 그 재료조차 모르고 제도에 대하여 끊임 없이 잘못된 논란만 거듭하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禮記」深衣篇의 '완전하고 허비가 없다.'는 말은 곧 검소함을 표시하므로 심의는 무명베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³¹⁾.

이덕무는 深衣制度는 본래 간편한 옷으로 인체의 장

단에 따라 제작되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치수에 얽매어 넓고 길게 만들어 수축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렀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비록 韓白謙(1552~1613)의 方領 對襟양식 심의제도가 옛제도와는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옷이 되니 입을만 하다고 인정하였다³²⁾. 이는 제도의 정확성 여부보다는 실제적 기능적인 면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실학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3) 기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고증

실학자들은 구성이나 형태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복식제도에 대해 고증할 뿐 아니라 복식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양을 계산하거나 세탁 관리법과 의복의 착용 자세 및 의복을 만드는 제기구들의 제조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고증하였다. 이같은 내용들은 특히 북학과 이후의 실학자들에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실제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후생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먼저 이덕무는 복식의 형태에 대한 문제에서 나아가 착용하는 자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별히 예를 갖추는 것으로서의 의복의 역할에도 관심을 두어 「禮記」의 글을 인용하여 ‘군자는 옷만 갖추고 용늪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어떠한 경우—한가할 때나 피곤할 때, 더위나 추위, 남루한 복식이나 새옷—에라도 바른 복식을 갖추고 몸을 삼가고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단정한 자세를 가지도록 권하고 있다³³⁾. 이같은 자세는 흔히 전통적인 의식에 매인 허례허식이며 체통과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 사회적 특성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허례를 벗어나 진솔한 예의로 생활하는 자세와 더불어 단정한 옷차림새를 추구하고 있다.

박제가는 의복제작에 있어서 형태나 구성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술의 개혁을 통한 의류제품의 생산성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길쌈이나 누에치기를 권장할 뿐 아니라 중국의 직조 기술과 제도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옛날의 베틀보다 다섯배나 더 잘 수 있는 베틀을 소개하고 있다³⁴⁾.

서유구는 裁縫諸具에 관한 고증에서 바늘 만드는 법을 소개하였으며³⁵⁾, 또 笠과 網巾의 오염 제거하는 법, 取皮物不蛀法, 取襪物不蛀法, 毛氈衣 씻는 법, 針을 녹슬지 않게 보관하는 법, 옷 보관하는 법 등 세탁

및 관리법에 대하여도 기록하여 실용적 실제적인 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³⁶⁾.

이규경은 服飾裁量辨證說에서 사람들이 몸을 감쌀 줄만 알았지 얼마를 가져야 支用에 충당할 수 있는지 재량할 줄은 생각지 않으므로 어리석다 하여, 복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옷감량을 계산하였다. 남자복식에서는 大昌衣, 道袍, 冬衣, 赤古里, 袴, 赤衫, 汗衫 등 여자복식에서는 赤古里, 單衫, 袴, 短袴, 廣短袴, 裳, 無足裳 등과 침구류에 이르기까지 고찰하였다. 그외 여러 털과 가죽의 용도 및 관리법, 세탁법까지 제시하고 있다³⁷⁾.

그리고 의복구성에 사용되는 바늘과 길쌈도구의 제작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증하였다. 바늘은 중국에서 수입할 뿐 제작하려고 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중국에 가서 배워올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문헌과 「林園十六志」를 참고하여 제작법을 소개하고³⁸⁾, 당시 방언으로 된 길쌈도구의 명칭에 대해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바로잡거나 해석을 붙이고 방언 명칭을 수정하여 명칭과 모양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의 참고가 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³⁹⁾.

정약용은 복식의 형태나 구성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았으며 의복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베 짜는 기술이 정교해지면 적은 재료로 많은 실을 생산할 수 있으며 무릇 모든 의복을 제작하는 과정이 편리하고 노력을 덜게 될 것이라 하였으며⁴⁰⁾, 布帛尺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고⁴¹⁾, 직조와 관계되는 여러 기구를 제작하여⁴²⁾ 기술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복식의 형태나 제도 등 구성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된 내용들은 주로 문헌고증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실증적인 자료나 실물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고찰된 내용들은 남자복식에는 笠, 囊笠, 緇冠, 龍冠, 方冠, 紗帽, 紗帽耳掩, 東坡巾, 網巾, 幅巾, 幘帽, 掩, 耳掩, 揮項, 風遮 및 道袍, 深衣, 鶴氈衣, 襪翼, 裘, 袴子, 欄衫, 油衣, 便服 등이 있다. 여자복식에서는 遮額, 足頭里, 披肩, 耳衣, 釵, 鞋, 衾褥, 帶履, 雜飾 및 圓衫, 唐衣, 衣裳 등이 있다.

그리고 복식제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裘, 笏, 民字巾, 深衣가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심의 제도는 실학자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홍대용은

<표 2> 조선 후기 실학파의 복식제도론

저자	내용	부 고 론	현실적 합리주의	개량, 개혁론	비 고
유형원 (1622~1673)	帖裡			笠, 足頭里	「磻溪隨錄」
이 익 (1681~1763)	帶, 方笠, 白衣		喪禮, 부인복	圓領色, 紅衣草笠, 髮髻, 冠禮服, 연지, 반지, 貫子	「星湖僿說」
홍대용 (1731~1783)	禮服				「湛軒書」
이금익 (1736~1806)			冠帶, 의복제도		「練藜室記述」
박지원 (1737~1805)	부너복식			帖裡	「燕巖集」
이덕무 (1741~1845)	부너복식(짧고좁은옷, 辮髮大髻, 簇兜, 北髻)을 중화에 따르도록, 四禮服(深衣, 幅巾, 箇髻, 襦衣)		笠子, 辮髮	笠, 氈笠, 平涼子, 紗帽, 圓領, 品帶, 袖衣, 汗巾	「靑莊館全書」
박제가 (1750~1815)	여자복식(辮髻, 襦, 裳)				「北學議」
정약용 (1762~1836)				國朝服, 序人服	「與猶堂全書」
이규경 (1788~?)	髻髻		갓옷		「五洲衍文長箋散稿」

朱子の 심의제도가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이덕무는 한 백경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양식의 方領深衣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 方領深衣는 조선후기에 전통적인 直領深衣와 더불어 널리 착용되었으니 이들의 비판적 사고에 입각한 심의제도의 고증은 심의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 복식제작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복식재량에 대해 변증하고 세탁 및 관리법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보인 것 역시 실학적 사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복식의 제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바늘, 길쌈도구의 제작 및 직조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생산의 증대는 양란을 겪은 이후 조선의 산업이 피폐하여지고 의생활이 궁핍한 현실에서 경제적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으며, 복식산업에 있어서 특별히 의류 직물의 생산성 향상에 관심이 모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증산을 위하여는 산업에 힘쓰도록 장려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의 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기술의 개혁에 앞장선 인물들은 대부분 북학파로서 이들은 중국의 선진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생산을 증대시키려는 개혁안은 이용후생으로 국가를 번영시키고자 한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체화한 것이다.

이상 복식의 제도에 대한 내용은 복식의 유래와 비교해 볼 때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종류에 대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실학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III. 복식제도의 정립 방향

실학자들이 복식의 유래와 구성에 대해 고증하고 연구한 이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으로서의 복식에 대한 지적 필요성을 인식한데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복식제도를 비판하고 이를 바르게 하여 복식문화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기초작업으로 이같은 연구를 행하였던 것이다. 실학자들이 제시한 복식제도의 방향은 경우에 따라서 보수지향적이기도 하였으며, 혹은 현실을 존중하는 합리성을 추구하기도 하였고, 적극적인 개혁론을 펼치기도 하였

다. 이러한 각각의 복식제도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고).

1. 복고적 복식제도론

초기의 실학자들은 복식제도의 고증 및 비판을 통하여 개혁보다는 제도의 회복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고대 경전을 이상화한 복고주의적 성향이기도 하다.

유형원은 「磻溪隨錄」에서 의관제도는 人文과 法象에 맞는 중국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제도에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옛 제도를 참고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하여 근본이 되는 제도를 추구하였으며 옛 제도로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에 公服의 裏衣였던 帖裡 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다시 고쳐 옛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⁴³⁾. 이때에(17세기 후반) 公服의 속옷으로서 帖裡制度가 없어졌다는 말은 그대신에 衣가 착용된 것을 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영조2년(1725)에 공복속에 흑천의 대신 백창의를 착용하는 풍속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며, 그후 정조17년(1792)에 청창의, 순조4년(1803)에 창의, 순조34년(1833) 역시 文陰官이 공복 아래에 창의를 착용하였다. 이처럼 첩리 대신 창의를 착용하게 된 이유는 창의를 간편한 포제로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⁴⁴⁾, 이같은 袍制의 변화는 실제적 실용적인 면을 추구하는 당시의 시대적 사조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원은 公服속에 帖裡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복고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복을 벗으면 바로 움복이 되므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편안한 때에도 위험을 잊지 않는다는 뜻을 간직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公服안에 深衣를 입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深衣를 공복 속에 입는다는 것은 구성상으로도 유사할 뿐 아니라 심의 역시 길 흉사에 통용되는 의복으로 편안한 때에도 위험한 때를 대비하기에 충분하며 오히려 예를 갖춘 의복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유형원이 복식제도의 복고론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본래의 뜻을 상실한 의복을 人文과 法象에 맞는 복식제도로 회복하자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익은 여러 복식제도의 유래를 고증하여 근본된 제도로의 회복을 주장하면서 근본되는 뜻을 잊지 않는 것이 곧 禮를 지키는 것이라 하였다⁴⁵⁾. 이처럼 근본제

도를 잊지 않고 禮를 갖춘 복식으로는 帶, 方笠, 白衣 등을 들고 있다. 또 문무왕 4년에 남녀 의복을 모두 중화의 제도로 개혁한 것은 거룩한 일이라 하여⁴⁶⁾ 고대복제를 이상화한 복고론을 지녔다.

홍대용은 몇몇 한정된 전통 예복에 있어서 중국 先代의 복식제도에 따르고자 하여 부분적으로 복고론을 펼쳤다⁴⁷⁾.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제도라 할지라도 불합리한 점은 비판하여 縫掖이 左衽만큼 편리하지 못하며, 華夷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각기의 풍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⁸⁾.

박지원은 「自笑集序」에서 부인의 복식이 고려말에 들어온 몽고의 胡制를 답습한 반면 중화의 제도는 기녀 복식에만 남아 있는 것을 안타까와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집안에서만은 부인복식을 중화의 제도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그가 지방관리로 나가있는 날이 많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전한다⁴⁹⁾.

이덕무는 조정의 복식은 물론 일반 남자와 여자복식에 이르기까지 중화복식에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⁵⁰⁾. 그중에서도 특히 부녀복식이 夷俗이 심하다 하여 짧은 좁은 옷과 辮髮大髻, 簪兜, 北靨는 자주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다. 또 祭禮와 冠禮 및 婚禮時에 深衣와 幅巾, 簪鬢와 禱衣를 착용하는 것이 몽고의 유풍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여 옛제도로의 복귀가 실질적인 면에서도 유익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⁵¹⁾.

박제가는 남자의 冠제도는 옛제도 그대로이지만, 여자복식에서 남자 머리카락으로 만든 辮鬢와 짧은 襦 및 풍성한 鬚은 胡服이므로 옛법에 뜻을 둔자는 중화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복고론을 제시하고 있다⁵²⁾.

이규경은 머리를 땀고 상투를 뜨는 것은 반은 胡, 반은 蠻이며, 족두리는 오랑캐도 아니고 중국제도도 아니니 도리어 鬢鬢만큼 상고시대의 假副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만도 못할 것 같다고 하여 옛제도를 숭상하고 있다. 또 중국의 華鬢를 본떠서 家鄉에서 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보였다⁵³⁾.

2. 현실적 합리주의

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전통적 사회는 옛것을 고수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변경된 속속에 따라 현실 풍속에 적응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

다. 그러나 실학자들은 보다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의 생활을 추구하며, 옛제도로의 복고주의를 벗어나 현실 제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실제적, 기능적, 실용적,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실학적 복식관이다. 이같은 경향은 조선중화주의를 표방한 조선 후기 사회에 있어서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 복식제도에 있어서 이처럼 제도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현실풍속을 인정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익은 옛제도를 존중하였으나 사물이 변화하는 이치를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복식에 있어서 형태는 변하였더라도 근본을 잊지 않고 옛모습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禮라고 하였으며, 올바른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옛제도를 참고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喪禮에 있어서 필요한 물건이 없는 지방에서는 다른 것으로 대응해도 된다는 것을 옛 문헌을 고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부인 초상에 사용하는 여모의 경우 옛제도를 참조하되 현실의 제도를 중시하여 새로운 제도를 정하였다⁵⁴⁾. 또 소매가 좁고 옷자락이 짧은 부인복은 服妖이지만 大同之風俗이라하여 현실 풍속을 인정하고, 官服을 정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옛 것을 상고하고 지금 것을 따라서 자세히 정하여야 오래도록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⁵⁵⁾.

홍대용은 시대에 따라 풍속에 순응케함은 聖人の 權道요 다스리는 기술이라 하여, 시대가 바뀌고 풍속이 변하여 법도가 행하여지지 않는데 억지로 거슬러 막는다면 그 혼란이 더욱 심할 것이라 하여 현실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보았다⁵⁶⁾. 특별히 당시 사회가 체면이나 형식에 매어 허례에 치우친 점을 비판하여, 예를 행함에 있어서 풍속에 따라 편의를 좇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하여 周公의 제도는 周의 편의를 따른 것이고 朱子の 예는 宋의 풍속을 따른 것이므로 정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⁵⁷⁾.

이규익은 冠帶와 의복제도의 변화는 시속을 따라서 변하므로 세상의 도리와 부합되는 면이 있다 하였다⁵⁸⁾. 이는 복식이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의미로서 복식 풍속의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라 볼 수 있

다. 그예로 종종말년에 笠 모양이 僧笠같이 변한 것은 그 후 불교의 성행을 예견한 징조였으며, 辛4亥 壬子 년간에 가죽머 댕기를 좋아하며 칼과 환도를 찬 것은 전쟁의 징조로서 그후 임진란이 있었으며, 黓笠은 흑戰笠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즐겨 쓴 것은 전쟁의 징조였다고 보았다⁵⁹⁾.

이덕무는 이미 그의 복고론에서 살펴본대로 중화복식에 따르도록 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옛 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며 시속에 따르는 것이 옳다하여 현실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장부가 쓰는 笠子是 夷俗이지만 하루 아침에 벗어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는 없다 하였고, 부녀의 辨髮가 몽고 유풍이지만 마지못해 시속을 따르더라도 사치를 숭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趙衍龜가 옛날의 鶴髦衣를 입어 세속을 놀라게 한 일을 들어 옛 것에 집착하는 것도 폐단이 있는 일임을 지적하고 있다⁶⁰⁾.

이규경은 갓옷의 경우 중국에서는 털이 밖으로 나오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털이 안으로 들어가게 입는데 옛 풍습을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대중을 따르겠다 하여 현실풍속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⁶¹⁾.

3. 복식 개량, 개혁론

실학자들에게 있어서 복식에 대한 두드러진 견해는 주로 경제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복식의 개량 및 개혁을 주장한 점이며, 이같은 현상은 초기의 실학자들 보다는 북학파와 후기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복식 개량론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족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지주적이며 비판적인 자세에서 출발한 것이다. 실학자들의 복식에 대한 개량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원은 귀천을 막론하고 笠을 쓰는 폐단을 冠巾으로 대응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부인의 足頭髻를 중국 부녀冠인 鍍子로 대신하여 감소하고 절약하는 풍속을 이루도록 제안하고, 또 지방관의 복식을 서울의 관리와 같게 한다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개혁안은 趙憲(1544~1592)의 글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 대의는 의관제도를 중국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⁶²⁾. 그의 개혁론 가운데 笠이나 족두리의 개혁은 경제적인 면을 추구한 것이며, 지방관의 복식은 威儀

를 갖추어 백성을 돌봄으로 올바른 정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익은 점차적인 개혁이 상책이라는 다소 보수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어, 모두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변경하여 통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개량하는 기본자세는 마땅히 옛 것을 상고하고 지금것에 따라서 정해야 폐단이 없다고 보았다.

그의 개혁안은 검소지향적이며, 성의를 다한 예를 중시하였으며, 잘못된 풍속을 바르게 하는데 있었다. 검소를 지향한 개혁안의 예를 들면 朝官 庶人官職者의 圓領색을 바꾸도록 하고, 연소자의 복장인 紅衣 草笠을 없애며, 髮髻의 유래가 巾幘 제도임을 밝혀 옛 건적을 개량하여 검소하게 만들었다⁶⁵⁾.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성의를 다한 禮를 중시하여 자신의 집안에서는 冠禮 복식을 개정하여 深衣와 幅巾, 儒巾과 靑衫, 笠子와 道服으로 착용하도록 家禮를 정하였으며, 이것도 갖추지 못하면 笠子와 道服으로 한번만 입어도 무방하나 각자가 잘 살피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⁶⁶⁾. 잘못된 풍속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개량하는 경우에는 大群때 쓰는 冠이 注疏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실과, 부인들이 얼굴에 찍는 붉은 연지나 반지의 잘못된 풍속을 지적하였으며, 鞵帶와 網巾의 貫子에 있어서 朝官의 복식이 왕과 같으므로 비록 옛 법이지만 따를 수 없다하여 새로운 법도를 정하여 상하동분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⁶⁵⁾.

홍대용은 검약하는 풍속을 이루기 위해 복식의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이같은 풍속은 위로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妃嬪이 錦繡를 입지 않아야 서인과 선비의 아내도 비단옷을 입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⁶⁶⁾.

박지원은 첩리의 소매가 넓고 한삼이 길어 용복으로서 부적합한 비기능적인 의복임을 여덟가지 이유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⁶⁷⁾.

이덕무는 笠, 鬘笠, 平涼子 등 여러 笠과 汗巾의 개량을 제안하고 있다. 당시 笠의 제도는 높고 넓어 볼품이 없을 뿐 아니라 불편하므로 그 형태를 개량하거나, 다른 冠巾이나 小笠을 쓰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⁸⁾. 평량자는 보다 기능적이고 품위있는 형태로 개량하고자 하였으며, 전립은 그 형태가 기능성을 가지도록 하고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쓰도록 하였다

⁶⁹⁾. 또 적삼 끝의 汗巾은 일하기에 불편하므로 없애도록 개량하고자 하였다⁷⁰⁾. 그외에도 여러 복식제도의 비기능성을 지적하여 紗帽의 각이 길고 圓領의 소매가 넓으며 品帶가 험렁한 것이나, 油衣에 대해 언급하였다⁷¹⁾.

정약용은 검소한 풍속으로의 개혁을 주장하여 國朝服이 10종이며 다시 寒暑節에 따라 8종, 직포에 따라 4종으로 나누어져 너무 많아 번잡스러우며 구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吉服, 軍服, 淺淡服, 甲冑의 4종류로 간소화할 것을 주장하였다⁷²⁾. 반면 庶人服에 있어서는 귀천을 구별하고 검약한 풍속을 이루고자 하여 서인계층을 進士, 舉人, 그밖의 사람으로 나누어 진사는 深衣, 거인은 整衣, 그외는 夾袖長襦(小整衣)로써 上服으로 삼도록 복식제도 개혁론을 제시하였다⁷³⁾. 당시 士族으로서 거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長襦를 입는다는 것은 상당한 반대가 예상되었지만 그는 능력에 따라 신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의복을 제시하여 이같은 복식개혁론은 신분제 개혁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일부 실학자가 주장하는 복식제도의 복고론은 옛제도의 회복 또는 중국 先代로의 복귀를 의미하기에 때로는 이점이 실학자의 시대적 한계성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학파는 실용과 과학은 청을 본받되 예와 정신은 중국 先代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통예복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복식관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이 문화적인 면에서는 곧 중화라는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서, 당시의 清朝복식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근원적인 漢文化를 수용하고자 하므로써 주체적인 입장에서 중화의 복식을 선택한 것이다.

복고론으로 대두되는 내용은 옛 제도로의 회복이나 근본을 잊지 않는 복식으로는 帖裡와 方笠, 帶, 白衣 風俗 등을 들고 있으며, 中華복식으로의 복고론은 부녀복, 부녀 머리 장식, 제례·관례·혼례시 예복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 복고론은 변화된 풍속을 돌이킨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주로 夷俗의 복식제도를 중화의 복식제도에 따르도록 하자는 것으로 복식개혁론과 일맥 상통한 점도 있다.

이처럼 고대복제를 이상화한 복고론은 실학이 오직 탈주자학으로서 원시유학으로 돌아가고자 한 학문적 성향과 일치한다. 이들의 복고적 성향을 가리켜 李乙

浩는 이를 차라리 尙古的이라고 하였으며⁷⁴⁾, 鄭玉子は 옛 것으로 돌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溫故而知新함에 그 의의를 둔 것이라 하였다⁷⁵⁾. 따라서 실학자에 의해 제시된 복고론은 옛 제도를 존중하고 근본을 잊지 않고자 하는 禮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또 고대복제가 오히려 실용적이라는 입장도 제시하여 실용과 근본을 추구한 실학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실학자들에게 있어서 옛 법에 매이는 것 보다는 복식제도의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는 형식적인 儀禮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풍속에 따라 실질적이며 편의를 좇으려고 한 데서 나온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四禮복식이 朱子의 禮를 따르는데 얽매어 있는 허례를 지적하고 지나치게 옛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였으며, 부녀복식을 비난하면서도 풍속을 인정하는 자세도 보였다. 특히 이익과 홍대용은 이같은 합리적인 자세가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며, 예를 행함에 있어서 풍속에 따라 편의를 좇아 가감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지녔다. 이같이 현실풍속에 적응하며 허례허식에 따르지 않고 실제적이며 편의를 좇고자 하는 복식론은 조선 후기 복식문화가 독자적이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복식 개량안이나 개혁안은 실학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복학파와 후기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그 내용은 검소를 지향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개혁론, 잘못된 풍속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개혁론, 체면과 체통을 중시하던 당시의 허례적인 측면을 벗어나 실용성 기능성을 추구하는 개혁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시된 복식의 내용으로는 笠, 足頭里, 髮髻, 紅衣와 草笠, 冠禮服, 國朝服, 庶人服 등이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笠, 籠笠, 汗巾, 油衣, 帖裡, 品帶 등 잘못된 풍속을 개혁하는 것으로는 부녀의 연지나 반지, 鞵帶와 網巾의 貫子, 足頭리가 있다. 그 가운데 기능적인 측면은 개량안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복식 개량 및 개혁론은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변통함으로써 고유한 복식문화를 이루는데 기여하였으며, 이어지는 개화기에 과감한 개혁으로 선진 의국문화의 수용을 예고하는 것이다.

IV. 결 론

본연구는 실학자들이 복식제도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탐구한 내용을 고찰한 것이다. 이들은 복식의 근원과 변천 및 구성에 대한 측면에 이르기까지 고찰하였으며, 나아가 이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복식제도를 정립해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에 있어서 복식제도란 유교사회의 문화적 바탕이 되는 禮를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16, 17세기에 이르러 四禮 복식에 대한 고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학기에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 생활 복식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1) 복식의 기원과 변천에 대한 고증학적 연구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복식제도에 대해 다루어져 남자복식중에는 笠, 蓑笠, 緇冠, 卧龍冠, 方冠, 紗帽, 紗帽耳掩, 東坡巾, 網巾, 幅巾, 幘帽, 掩, 耳掩, 揮項, 風遮 및 道袍, 深衣, 鶴氅衣, 襪翼, 裘, 褙子, 襦衫, 油衣, 便服 등, 여자복식중에는 遮額, 足頭里, 披肩, 耳衣, 釵, 鞋, 衾履, 帶履, 雜飾 및 圓衫, 唐衣, 衣裳 등이 고찰되었다. 그 가운데 笠과 道袍, 婦女의 首飾과 衣服 및 木棉에 대한 고찰이 많아 당시의 대표적인 복식에 대한 의문점이나 문제점에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복식에 대한 고증학적 연구의 목적은 복식이 변화해 온 내력을 살피고자 하는 지적 탐구작업이기도 하였지만, 복식제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풍속에 대해 문헌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제도를 확립하는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었다.

이같은 복식의 유래에 대한 고증은 원시유학을 지향하는 실학자의 관심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方笠, 羅濟笠, 辮髮과 蓋首 등에 관한 고증과 木棉의 전래에 대한 고찰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다.

그리고 복식제도의 유래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을 고증한 것으로는 笠子, 雙紉, 족두리, 너울, 袋, 白衣禁令, 道袍, 木棉(綿과 棉, 木棉과 草棉) 등이 있으며, 잘못된 풍속에 대해 고증한 것으로는 笠, 巾, 幘頭, 髮髻, 鬚鬢, 襦衫, 부녀복, 연지 등이 있다.

2) 복식의 구성에 대한 연구 내용은 형태나 구성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잘못된 복식제도를 지적하기도 하고, 복식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소요량, 세탁과 관리법, 복식의 제작에 필요한 바늘이나 길쌈도구의 제작과 직조, 의복의 착용 자세 등 실제적인 다양한 부문에 까지 이른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문헌을 고증하는 작업이었으나 실증적인 자료나 실물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시험적이며 과학적,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구성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같은 연구의 목적은 잘못된 복식의 형태를 지적하여 바르게 할 뿐 아니라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제도를 추구하였다.

고찰된 내용으로는 남자복식에서는 笠, 囊笠, 緇冠, 卧龍冠, 方冠, 紗帽, 紗帽耳掩, 東坡巾, 網巾, 幅巾, 幘帽, 掩, 耳掩, 揮項, 風遮 및 道袍, 深衣, 鶴髦衣, 襪翼, 裘, 褙子, 欄衫, 油衣, 便服 등이 있으며, 여자복식에서는 遮額, 足頭里, 披肩, 耳衣, 釵, 鞋, 衾襪, 帶屨, 雜飾 및 圓衫, 唐衣, 衣裳 등이 있다.

그리고 복식제도가 잘못된 것으로는 裘, 笏, 民字巾, 深衣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深衣 구성에 관한 비판적인 연구는 이 시기에 매우 활발하여 方領양식의 심의가 보편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 뿐 아니라 복식제작에 필요한 소요량이나 세탁 및 관리법에 관심을 보인 것은 실제적인 면을 중시한 실학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 바늘, 길쌈도구의 제작 및 직조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생산을 증대시키려 한 점은 북학과 이후 이용후생을 이루고자 한 실학자의 이념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2. 실학자들은 복식의 유래와 구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복식제도를 정립해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 방향은 대략 세가지로 보수지향적인 복고적 복식제도론과 현실을 존중하는 합리론, 적극적인 복식 개량 및 개혁론으로 나누어진다.

1) 복식제도의 복고론은 옛제도의 회복 또는 중국 先代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대복제를 이상화한 복고론은 실학이 오직 탈주자학으로서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고자 한 학문적 성향과 일치한다. 이 복고론은 옛제도를 존중하고 근본을 잊지 않고자 하는 禮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또 고대복제가 오히려 경제적이며 실용적이라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실용과

근본을 추구한 실학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복고론으로 대두된 내용중에는 옛제도로의 회복이나 근본을 잊지 않는 복식으로는 帖裡와 方笠, 帶, 白衣 風俗 등이 있으며, 중화복식으로서의 복고론은 부너복, 부너 머리 장식, 제례·관례·혼례시 예복에 대한 내용이 있다. 실학자 중 대부분은 복고론을 주장하는 일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 복고론은 변화된 풍속을 돌이킨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주로 夷俗의 복식제도를 중화의 복식제도에 따르도록 하자는 것으로 복식 개혁론과 일맥 상통한 점도 있다.

2) 실학자들은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생활을 추구하여 복고주의를 벗어나 현실제도를 존중하는 자세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옛 법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사고는 허례를 벗어나고자 하는 실학적 禮論과 일치하는 것이며, 형식적인 儀禮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실용과 편의를 좇으려고 한 것이다.

이들이 주장한 복식의 내용은 주로 四禮복식이 朱子の 禮를 따르는데 얽매어 있는 허례를 지적하여 풍속에 따라 편의를 좇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옛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부너복식을 비난하면서도 풍속을 인정하는 자세도 보였다. 실학자 가운데 특히 이익과 홍대용이 현실풍속을 인정하는 합리론을 펼쳤다. 현실풍속을 우선으로 여기는 복식제도론은 조선 후기 복식문화가 독자적이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3) 실학자들에게 있어서 복식에 대한 두드러진 견해는 복식의 개량 및 개혁을 주장한 점으로서, 실학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북학과와 후기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그 목적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소한 풍속을 이루고, 잘못된 풍속을 바르게 하기 위한 개혁과 허례에서 벗어나 기능성을 추구한 개량론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시된 복식의 내용으로는 笠, 足頭里, 髮髻, 紅衣와 草笠, 冠禮服, 國朝服, 庶人服 등이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笠, 髻笠, 汗巾, 油衣, 帖裡, 品帶 등 잘못된 풍속을 개혁하는 것으로는 부너의 언지나 반지, 鞵帶와 網巾의 貫子, 足頭里 등이 있다. 이같은 복식개량 및 개혁론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족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자주적이며 비판적인 자세에서 출발한 것으로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개량, 개혁함으로써 고유한 복식문화를 이루는데 기여하였

다.

3. 이상 실학자에 의해 제시된 복식에 대한 연구와 복식제도론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합한 복식문화를 창조해 나아가는데 한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실학적 복식론에 의한 현대적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실학자들의 가치관은 원시유학을 지향하여 근본을 추구하는 측면과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을 추구하는 자세라는 두 개의 축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전자는 복식의 원형을 찾는데 촛점을 두고 고증학적으로 연구하게 하였으며, 복고론이라는 복식제도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였다. 반면 후자는 복식 구성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와 현실풍속을 인정하는 융통성과 복식개량 및 개혁론으로 복식제도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였다.

오늘날 복식의 흐름에 있어서 서양복이나 한복을 무론하고 전통과 현실이라는 문제는 하나의 테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 두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학적 복식론에서 처럼 본질을 잊지 아니하는 전통성을 지니면서도, 실용과 편의를 존중하여 현실을 만족시킨다는 두 개의 축을 지닌 복식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전통의 추구는 전통미라는 외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근본되는 예의를 의복이나 착용 자세를 통하여 표현하는 내면적인 측면도 포함된다. 오늘날 복식이 기능과 편리 혹은 미적인 면을 추구하는데 치우쳐 내면적인 면을 소홀히 하는 점을 생각할 때, 허례허식은 분명히 벗어나야 할 것이지만 진솔한 예의 실현은 오늘날 복식문화의 보완점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현상윤, 朝鮮儒學史, 玄晉社, 171-184, 1986.
- 2) 정성철,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한마당, 307, 1989.
- 3)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편,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188, 1990.
- 4) 星湖僿說, 卷之六, 萬物門, 景文社, 1981.
- 5) 星湖僿說, 卷之五, 萬物門, 景文社, 1981.
- 6) 李肯翊, 練藝室記述 別集 卷之十一 政教典故.
- 7) 李肯翊, 練藝室記述 別集 卷之十三 政教典故.

- 8) 李肯翊, 練藝室記述 別集 卷之十三 政教典故.
- 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四, 古今冠巾制度辨證說.
- 1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十五, 東國婦女首飾辨證說.
- 1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三十七 衣服裁量辨證說, 卷四十五 緩耳栢袷履項緩帽辨證說.
- 12) 星湖僿說, 卷之四 萬物門, 卷之二十一 經史門, 卷之五 萬物門, 景文社, 1981.
- 1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五十六 叢葉記 三 棉.
- 14)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六十一 叢葉記 八.
- 1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四十五 帷帽辨證說.
- 1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十五, 東國婦女首飾辨證說.
- 1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四十五, 道袍辨證說.
- 18) 星湖僿說, 卷之五 萬物門, 卷之六 萬物門, 卷之十 人事門, 景文社, 1981.
- 19)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一 抗一 抗傳尺牘 與鐵橋書.
- 2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六十一 叢葉記 八.
- 2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四, 古今冠巾制度辨證說.
- 22) 星湖僿說, 卷之四, 萬物門, 景文社, 1981.
- 23) 星湖僿說, 卷之五, 萬物門, 景文社, 1981.
- 24)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一 抗傳尺牘 與鐵橋書.
- 25)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一 抗傳尺牘 與孫蓉洲有義書, 外集 卷一 抗傳尺牘 與秋周書.
- 26)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六 嬰處雜稿二 觀讀日記, 卷之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 一 服食, 卷之八 禮記應深衣.
- 27)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六十一 叢葉記 八 笠弊.
- 28)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四 古今冠巾制度辨證說, 卷八 冠裳辨證說, 卷十五 東國婦女首飾辨證說, 卷三十 經帶辨證說, 卷四十五 道袍辨證說, 卷五十六 深衣辨證說.
- 29) 星湖僿說, 卷之四 萬物門, 卷之十二 人事門, 卷之十 人事門, 景文社, 1981.
- 30)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一 小學家禮問疑.
- 31) 朴趾源, 熱河日記 口外異聞 深衣.
- 32)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八 禮記應 深衣.
- 3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二十七~二十九 士小節 第二 士典二 動止.
- 34) 朴齊家, 北學議.
- 35) 徐有渠, 林園十六志, 瞻用志 卷第三 服飾之具 裁縫諸具 針, 保景文化社, 1983, 437.
- 36) 徐有渠, 林園十六志, 瞻用志 卷第三 服飾之具, 保景文化社, 1983, 426-439.
- 3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四 服飾裁量辨證說.

- 38)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十八 布針辨證說.
- 3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十九 織具辨證說.
- 40) 丁若鏞, 技藝論二 與猶堂全書 第1集 227.
- 41) 丁若鏞, 度量衡議 與猶堂全書 第1集 183.
- 42) 丁若鏞, 戶典六條 勤農 與猶堂全書 第5集 445.
- 43) 柳聲遠, 礪溪階錄, 卷之二十五 續編上 衣冠, 1769.
- 44) 순조34년(1833)에 문음관의 공복 속에 창의대신 첩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이미 창의가 보편화되었고 첩리보다 간편한 옷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5) 星湖僊說, 卷之二十一, 經史門, 景文社, 1981.
- 46) 星湖僊說, 卷之六 人事門, 景文社, 1981.
- 47) 湛軒書, 外集 卷二 抗傳尺牘 與孫蓉洲有義書.
- 48)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 49)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2), 민족문화사 연구 제 6호, 민족문화사연구소, 57-59.
- 5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五十七 蠶葉記 四 易服之令, 卷之六十一 蠶葉記 八 女服從華制.
- 51)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服食.
- 52) 朴齊家, 北學讓 內篇 女服.
- 5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十五 東國婦女首飾辨證說.
- 54) 李乙浩 외, 한국의 실학사상, 삼성출판사, 20, 1991.
- 55) 鄭玉子, 朝鮮後期知性史, 一志社, 103面, 1991.
- 56) 星湖僊說, 卷之十四 人事門, 卷之五 萬物門, 景文社, 1981.
- 57) 星湖僊說, 卷之十, 人社門, 卷之六 萬物門, 卷之十 人事門, 景文社, 1981.
- 58)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 59)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三 與人書 二首.
- 60) 李肯翊, 練藜室記述 別集 卷之十三 政教典故.
- 61) 李肯翊, 練藜室記述 別集 卷之十三 政教典故.
- 62)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服食, 卷之二十七~二十九 士小節 第一 士典一 服食.
- 6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二十五 裘毛向外辨證說.
- 64) 柳聲遠, 礪溪階錄, 卷之二十五 續編上 衣冠, 1769.
- 65) 星湖僊說, 卷之十二 人事門, 卷之八 人事門, 卷之六 萬物門, 景文社, 1981.
- 66) 星湖僊說, 卷之八 人事門, 卷之五 萬物門, 卷之六 萬物門, 景文社, 1981.
- 67) 星湖僊說, 卷之十三 人事門, 卷之五 萬物門, 卷之十 人事門, 景文社, 1981.
- 68)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 69) 朴趾源, 熱河日記 漠北行程錄.
- 7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六十一 蠶葉記 八 笠當改造.
- 71)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六十一 蠶葉記 八 論諸笠.
- 72)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二十七~二十九 士小節 第一 士典一 服食.
- 7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六十三 天涯知己書, 卷之六十一 蠶葉記 八 笠弊.
- 74) 丁若鏞, 公服議, 與猶堂全書, 第一集, 185.
- 75) 丁若鏞, 庶人服議, 與猶堂全書, 第一集, 186上.